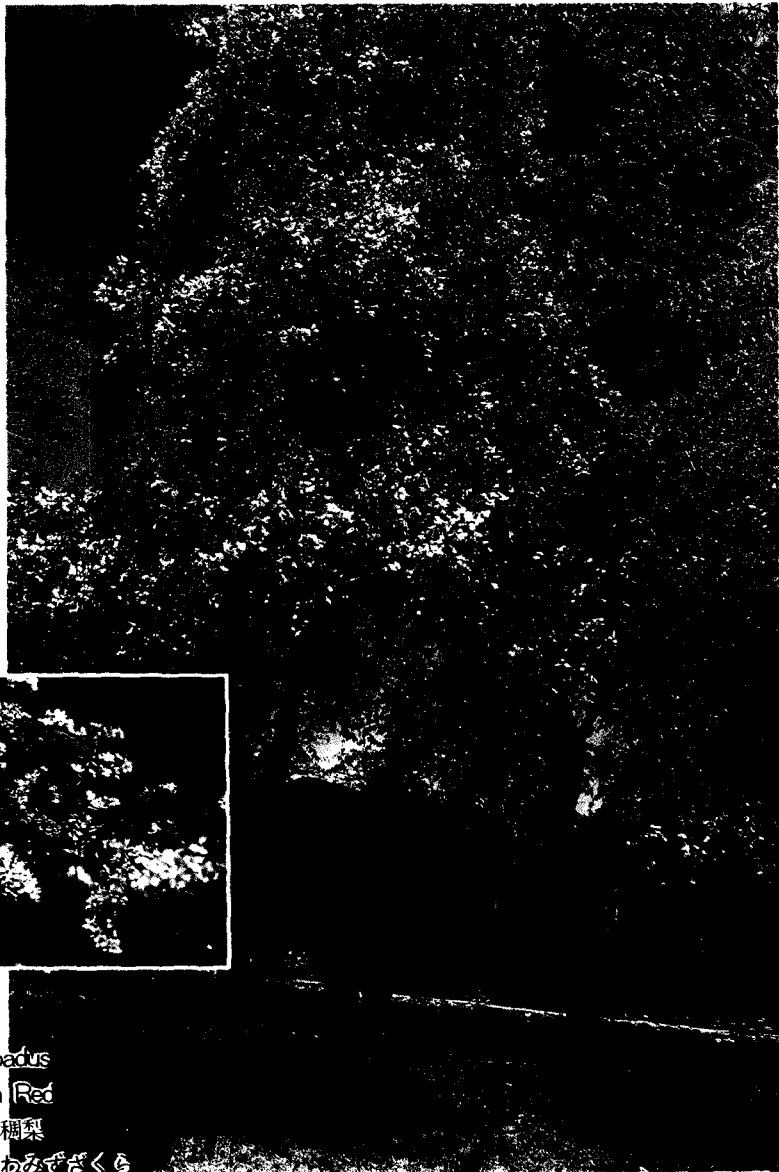


최명섭 / 임업연구원

귀룽나무



과명 : 장미과

학명 : *Prunus pedus*

영명 : European Red

한명 : 九龍木, 稠梨

일명 : えぞのうねみずざくら

중부 이북의 깊은 산골짜기에 서 자라는 귀룽나무는 벚나무에 비해 꽃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채롭다.

식물의 분류 단위인 과(科), 속(屬), 종(種) 중 벚나무 속(Prunus)에 속하면서도 꽃차례(花序)의 형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외관상으로도 성목이 되었을 때 벚나무나 왕벚나무는 수관이 넓게 벌어지는 형태이나 귀룽나무는 버드나무류처럼 약간 늘어져서 비교가 되기도 한다.

벚나무나 왕벚나무에 비해 잎이 길고 꽃이 6월에 꼬리모양으로 주렁주렁 길게 달리는 것이 다르며 열매가 가을 늦게까지 매달려 아름답다. 벚나무중에서 생육이 가장 빨라 속성수로 사용할 경우 좋으며 열매는 맛이 좋아 브랜드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1. 생태적 특성

중부 이북의 표고 1,800m 이하의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낙엽활엽큰키나무로 수고 15m에 달하고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에도 분포한다. 우거진 수풀아래에서도 잘자라고 추위와 공해에도 강하며 습기를 좋아한다.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잘자라며 바다가에서도 잘자란다. 맹아력이 좋고 생장이 빠른 속성수이다.

2. 형태적 특성

어려서는 곧게 올라간 줄기가

굵어 지면서 줄기에 굴곡이 생기며 잔가지는 휘어져 늘어진다. 수피는 흑갈색이고 세로로 벌어진다. 잎은 도란상 타원형으로 어긋나고 길이 6~12cm, 넓이 3~6cm로 표면은 녹색으로 털이 없고, 뒷면은 회녹색으로 맥액(脈液)에 털이 있다.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1.0~1.5cm로서 털이 없고 밀선(蜜腺)이 있다. 총상화서(總狀花序)는 새가지 끝에서 나와 길게 처치며 길이 10~15cm로 털이 없고 밑부분에 잎이 달린다. 꽃은 5월에 지름 1.0~1.5cm의 백색으로 피며 열매는 핵과(核果)로서 둥글며 7월에 흑색으로 익고 핵(核)은 주름이 있으며 과육(果肉)은 짙다. 유사종으로는 흰털귀룽(var. pubescens), 털귀룽(var. pubescens for. purdoma), 서울 귀룽(var. seoulensis), 흰귀룽(var. glauca), 차빛귀룽(var. rufo-feruginea) 등 5종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5월에 백색으로 늘어져서 피는 꼬리모양의 꽃이 아름답고 벚나무중에서 생육이 빨라 가장 빠른 시일내에 조경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다른 벚나무는 절대 전정을 해서는 안되지만 귀룽나무는 재생능력이 강하고 맹아력도 강하여 수형조절이 가능하다.

늘어지는 꽃을 감상하기 위해 절개지의 사면 아랫부분이나 계곡, 하천변, 호수가에 식재하면

아름다운 백색의 꽃과 여름에 익는 검은색의 열매가 아름다워 조경수로 개발 가치가 높으며 열매는 맛이 좋아 새들도 즐겨 찾아 아름다운 꽃과 새를 불러 모아 조경의 가치를 한층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번식법

7월중순쯤 익는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나무 밑에 비닐을 깔고 장대로 드리면 쉽게 종자를 채취할 수 있고 채취된 종자는 과육을 제거하고 보관하였다가 그해 가을에 노천매장(露天埋藏)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채취후 곧바로 상을 만들고 직파하여 충분히 관수하면 이듬해 봄에 발아한다. 어린 묘목에서부터 잔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재용도에 따라 수형조절을 하여야만 한다.

5. 그밖의 용도

이른봄 나오는 새순이나 뿌리 주위에서 나오는 맹아지의 새순은 나물로 이용하며 새순이나 싹에 함유된 황색의 정유성분은 항생작용을 하는데 한여름에 그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다. 여름에 익는 열매는 약용으로 술을 담아서 사용하기도 하며, 맛이 좋아 브랜드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옛 어른들은 가지를 진하게 다려서 목욕물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한다고 하였다.